

고소설 속 관서·관북 지역의 형상화와 그 의미

탁원정*

<차례>

1. 서론
2. 작품 속 관서 관북 지역의 분포와 빈도
3. 작품 속 관서 관북 지역의 형상화
 - 1) 문화적 형상화
 - 2) 정치적 형상화
 - 3) 역사적 형상화
4. 관서 관북 지역 형상화의 특징과 의미
 - 1) 지리지적 사실에 충실한 형상화
 - 2) 절강 지역의 환유 공간, 평양
 - 3) 서사의 유형성과 '비일상'이라는 지역성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고소설 속에 형상화된 관서 관북 지역의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관서 관북 지역은 먼저,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감사 관련 연회나 행사, 평양기생이라는 풍속과 명승지를 갖춘 유람지의 면모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문화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은 전란 관련 서사를 통해 북방 변경 지역으로서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치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이자, 발해의 옛땅이며 조선 건국의 주축이 되는 땅으로서, 이와 관련한 역사적 내력과 인물의 소회, 감회의 감정이 더불어 서술되는 방식을 통해 역사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서 관북 지역의 형상화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관서 관북

* 이화여대 강사

지역은 역사나 정치, 문화적으로 대체로 당시 지역의 실상과 부합되는 형상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 배경 작품들이 실제 가보지 않고도 지리서나 역사서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들 작품 속에서 평양은, 중국 배경 소설의 절강 유역과 유사한 심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풍류와 유희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평양이 절강 유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등한 공간 배경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관서 관북 지역을 다룬 작품들은 크게 전란 관련 이야기, 평양 기생과의 만남과 유람 이야기라는 서사적 유형성을 띠며, 이는 이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비일상성’이라는 일정한 유형성을 형성한다.

주제어 관서 관북 지역, 기생, 유람, 변방 지역, 평양, 절강, 서사적 유형성, 비일상

1. 서론

명(明)을 비롯해 송(宋), 당(唐) 등 중국의 역대 국가들이 고소설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양상이다. 이는 특히 애정전기를 비롯해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숙향전>, <소현성록> 등 17세기 작품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때 중국은 단순히 시대적 배경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 배경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본격적인 소설의 등장부터 중국이 시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되고, 이것이 일종의 전통 혹은 관습처럼 이후의 고소설 일반에서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김태준은 “당시 작가들이 중국 소설을 심독한 후 그것을 모방하여 자신이 동경하며 이상화한 인물과 지명을 그대로 기록했다”¹⁾고 하였고, 우쾌제는 “중국 역대의 문학 작품 등을 통한 간접체험이라도 독자들의 무지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이

1)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20면.

국의 지명과 풍속, 역사 등을 그대로 원용해 왔다”²⁾고 했다. 또한 19세기 한문소설 <절화기담>의 평비자 남화자(南華子)는 19세기까지 유지되던 중국 배경의 관행을 비꼬는 맥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으면 꼭 중국의 일을 쓰고는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볼 게 없다’고 한다.”³⁾고 하였다. 이 밖에도 당대의 조선보다는 중국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적합하다는 견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이 가장 적절한 설이든 간에 고소설이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며, 현대의 독자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런데 실상 작품들을 접하다 보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복규는 김기동이 밝힌 225종의 고소설 중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모두 71종이라고 하면서, 이들 중 사건의 배경지가 뚜렷한 20종을 제시하였다.⁴⁾ 이 책에서 이복규는 <취유부벽정기>의 평양이나 <심청전>의 황주, <장화홍련전>의 철산 등이 북한 지역이라 연구하기 힘든 사정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배경 중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는데⁵⁾, 실제 이들 연구 역시 대부분 남한 지역

2) 우쾌제, 『<南征記>의 南征路에 나타난 西浦의 中國 認識 考察』,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79면.

3) 東人著說, 必用夏, 必曰, “東無觀焉.” <절화기담> 追序, 김경미, 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93면.

4) <만복사저포기>-남원 만복사/ <이생규장전>-송도의 낙타교와 선죽리/ <취유부벽정기>-평양의 부벽정/ <이화전>-전라도 여산/ <숙영낭자전>-안동/ <부용상사곡>-평양/ <장화홍련전>-평안도 철산/ <콩쥐팍쥐전>-전주/ <김인향전>-평안도 안주성/ <황월선전>-전라도 여주/ <정진사전>-충청도 괴산 산원동/ <김씨열행록>-관동땅/ <허생전>-서울 남산 목적동/ <양반전>-정선군/ <오유란전>-평양/ <이춘풍전>-서울/ <춘향전>-남원/ <심청전>-황해도 해주/ <홍부전>-충청, 전라, 경상/ <배비장전>-제주
이복규, 『우리고소설연구』, 역락, 2004, 292~293면.

5) 앞 책, 293~294면.

에 집중되어 있고 그 대표적 지역은 <만복사저포기>와 <춘향전>의 공통 배경인 남원이다. 특히 <춘향전>과 남원의 관계는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소설의 지역이 역시 관심사가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분단이라는 현 상황에서 평양이나 황주, 철산 등의 북한 지역이 우리나라 배경으로 쉽게 인지되지 않는 정황도 일정 부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당수 존재하는 우리나라 배경 소설들 속에서 서울인 한양을 제외한 특정 지역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역은 바로 관서 지역, 즉 평안도의 중심지인 평양이다. 또한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 속에서 평양에 대한 관심이나 의미 부여도 상당히 이루어진 편이다. 무엇보다 <금오신화>의 <취유부벽정기>가 평양의 부벽정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들에서 평양의 공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평양감사 부임, 평양 기생과 유생의 만남, 평양 유람이라는 공통적 화소를 지니는 조선 후기 애정 세대 소설류의 존재감 속에서 평양은 서사의 중요한 공간 배경으로 언급되어 왔다.

먼저,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에 대해서는 <금오신화>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 평양이라는 공간의 역사성에 주목하여 작가 김시습의 지주적 문화의식을 드러내는 공간이나, 고조선이나 고구려에 대한 회고 의식으로 표현되는 공간으로 보거나, 부벽정이 지니는 의미를 작가 김시습의 허탈과 허무 극복이라는 도가적 차원에서 파악하기도 했다.⁶⁾

6) 임형택, 「현실주의적 세계관과 금오신화」, 『국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회, 1972 / 이상택, 「취유부벽정기의 도가적 문화의식」,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사, 1983 / 설중환, 『금오신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과 초월의 문제」, 『한국고전소설연구』, 이우출판사, 1983 / 이혜순, 「금오신화」,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윤호진, 「취유부벽정기의 공간 구조와

이런 공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작품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는 것은 의미망들의 차이에도 그만큼 <취유부벽정기>에서 평양이나 평양의 부벽정 같은 배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다음의 연구들은 이를 좀 더 초점화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먼저, 이승수⁷⁾는 평양이 지나는 공간적 상징성이나 분위기를 문헌들을 통해 확인한 후, 이것이 문학 작품 속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과 ‘역사의 회고’라는 두 가지 주제로 대표된다고 하면서, 이런 전제 하에 <취유부벽정기>의 전체 서사를 평양이라는 공간에 집중해 분석했다. 결국 홍생이라는 남주인공이 평양이라는 과거의 공간으로 이동했다는 떠남의 서사가 매우 중요하며, 고조선과 고구려의 유희에서 이별이 전제된 애절한 사랑을 나누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우리 문학 일반에서 나타나는 평양의 문화적 분위기와 그대로 일치한다고 보았다. 박일용⁸⁾은 <취유부벽정기>에서의 부벽정이라는 공간이 심리적 초월 체험을 반영한 ‘준초월적 공간’으로, 이런 공간 설정 속에서 강한 현실지향성을 지녔으면서도 현실의 초월을 꿈꿀 수밖에 없는 홍생의 역설적 상황에 작가 자신의 상황을 절묘하게 결합시킨 것으로 보았다. 전성운⁹⁾은 다른 연구들에서 도입부의 평양 묘사가 역사성, 회고성을 보여준다고 한 것과 달리, 도입부의 묘사 자체는 영명사와 부벽정의 승경(勝景)과 그 주변의 유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이런 묘사 속에서 홍생 또한 애초에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이었다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

작가의식, 『중국어문학』 18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90.

7)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 탐색 1 평양-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와 이태준의 <패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3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8)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등목취유취경원기>, <감호야범기>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9) 전성운,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던 흥생이 현재적 관점에서 번잡한 유흥의 도시지만 과거에는 영웅이 살았던 위대하고 성스러운 공간이었다는 평양이 지나는 이중성 속에서, 청흥(淸興)과 역사적 무상감을 체험하면서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이런 심리 변화의 중요한 매개체로 영사시적 특징을 지니는 삽입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김수연¹⁰⁾ 또한 평양과 부벽정의 성격에 주목하였는데, 이 논의에서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 안에 여러 개의 시간층이 겹쳐 있는 특수 공간이라는 의미의 ‘공간경계역’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부벽정을 고조선 이래 우리 역사가 시간 주름을 이루며 존재하는 공간경계역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런 공간경계역에서 그곳을 스쳐갔던 사람들과 심리적 공감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환상과 비애의 미감이 이 작품의 전반적인 의경(意境)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애정 세대 소설류로 범박하게 총칭한 소설군은 엄밀하게 기녀와의 애정담과 남성 훼손담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양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지는 않기로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애정 세대 소설군의 주요 배경이 평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¹¹⁾, 다음 논의들에서는 평양이라는 지역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황혜진¹²⁾은 평양을 배경으로

10)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11) 김종철은 <정향전>이나 <지봉전>이 풍자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을 하면서 평양 지방 관이라는 특수공간에서 배태된 웃음으로 보았다.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이은숙은 <채봉감별곡>, <부용상사곡>, <이화몽> 등의 신작 구소설의 지리적 배경으로 평양이 두드러진 것과 관련해, 당시 평양을 포함한 서북지방이 신문물을 받아들여 새로운 기풍이 조성되었던 곳이므로 배경 자체가 신작 구소설의 개방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은숙 「신작구소설의 성격을 통해 본 연구전망」, 『국어문학』 34, 국어문학회, 1999.

12)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2007.

한 <옥단춘전>, <부용상사곡>, <채봉감별곡>, <이진사전>, <이춘풍전> 등을 대상으로, 이들 소설에 형상화된 평양의 지역성을 ‘인간사(人間事)를 펼치는 무대’, ‘유정(有情)한 존재인 자연’, ‘명승지(名勝地) 중심의 지역관’의 세 가지 항목으로 다루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에서 명승지가 두드러진 평양 지도를 제시하면서 소설이 특정 지역에 대한 당대의 관념을 반영한다거나 명승지 유람과 감상 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명소를 매개로 역사와 한 개인이 연결된다는 논의는 고소설 속 평양 배경의 인문지리적 기능과 의미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나경운¹³⁾은 기존의 남성혜절형 소설 연구에서 혜절이 발생한 공간의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혜절 공간이 남주인공의 출신지인 서울이 아닌 지방이라는 점과 그 지방의 문화적 배경이 이들 작품의 비판의식과 밀접하다고 하였다. 특히 평양의 경우 중앙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배제된 공간, 성리학적 질서와 거리가 먼 공간이면서 상업의 발달로 유흥문화가 발달한 공간이었기에, 서울에서 파견된 양반들이 유흥과 향락을 마음껏 즐겨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바로 그런 인식이 평양 지역민으로부터 반감을 사고 그것이 작품의 비판의식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존의 평양 중심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되, 그 지역을 평양을 포함한 평안도와 함경도로 확대하여, 고소설 속에 형상화된 관서 관북 지역의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과 의미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본 논의는 일차적으로 평양에 국한되었던 고소설 속 관서 관북 지역 문학적 형상화의 전반적 지형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차적으로는 다른 장르와는 구분되는 고소설 속 관서 관북 지역 형상화의 특징을

13) 나경운, 「남성혜절 소설의 비판의식 연구 -<배비장전> <오유란전> <삼선기>의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밝혀보고자 한다. 같은 지역에 대한 당대인의 경험과 공감을 토대로 하면서도, 그 경험과 공감이 소설이라는 허구의 틀을 거치면서 어떤 특징적 양상을 띠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¹⁴⁾

2. 작품 속 관서 관북 지역의 분포와 빈도

고소설 작품 속에서 관서 관북 지역이 거론되는 경우, 단순히 지명이 거론되는 경우와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가 연계되는 경우, 나아가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는 등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 장에서는 일단 이런 양상의 차이를 접어두고 어떤 지역이 거론되고 얼마나 거론되는가를 기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서 지역

먼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를 지칭하는 관서 지역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평안북도

창성: <최척전>, <김영철전>

의주: <강로전>, <정생기우기>

철산: <장화홍련전>

강서: <이진사전>

14) 이런 전제 하에 창작시기의 선후, 작가나 독자층의 양상, 한문본과 한글본의 존재, 유형의 차이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작품들을 대상화했으며, 이 지역 작품군 전반의 지형도를 그린다는 점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이루지는 못했음을 밝혀둔다.

곽산: <강로전>

* 평안남도

안주: <인향전>, <주생전>, <김영철전>, <강로전>

평양: <취유부벽정기>, <김영철전>, <강로전>, <정생기우기>, <이진사전>, <오유란전>, <옥단춘전>, <채봉감별곡>, <부용상사곡>, <삼선기> 등

평양 이외의 지역으로 작품의 주요 배경이 되는 지역은, <장화홍련전>의 배경인 철산과 <김인향전>의 배경인 안주이다. 특히 <장화홍련전>의 박인수본이 17세기 중반 평안도 철산 지방의 부사로 제수된 전동홀 실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산은 이야기의 비현실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 속에서 철산 지방 자체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서 지역의 경우, 평안남도의 대표적인 두 도시인 안주와 평양을 비롯해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이 언급되고 있으며, 평안남도에서는 단연 평양의 빈도가 높고 평안북도에서는 국경 근처인 의주나 창성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2) 관북 지역

다음으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지칭하는 관북 지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함경북도

백두산, 회령: <이진사전>

* 함경남도

북청: <이진사전>

함흥: <월하선전>

안변: <이진사전>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관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고 빈도도 낮다. 특히 함흥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진사전>에서 이진사의 방랑 겸 유람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고소설 속 관서 관북 지역은, 그 분포에서 관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평양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작품 속 관서 관북 지역의 형상화

1) 문화적 형상화

평안도와 함경도의 중심지인 평양과 함흥은 중앙에서 감사가 파견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이 중심지인 만큼 이곳을 관할하는,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감사의 권세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평안 감사의 위세는 대단했다. 이는 도입 행사의 규모와 화려함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평안감사도임행사도(平安監事到任行事圖)’¹⁵⁾는 물론 김홍도의 ‘연광정 연회도’, ‘부벽루 연회도’ 등의 풍속화를

15) 평양감사도임행사도는 평안도 관찰사가 평양으로 도입하는 의례과정 중 환영 연회를 도해한 지방행사도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3폭과 미국 피바디에섹스 박물관 소장 8폭 병풍이 있다. 이명희, 『平安監事到任行事圖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참조.

통해서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입 이후 머물게 되는 관사의 규모나 그곳에서 여는 연회의 규모도 대단한데, 실제 작품들에서 평안감사의 관사인 선화당에서 벌어지는 연회는 유흥적인 평양의 분위기를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선화당에 차려놓은 음식은 처음 보는 이생의 귀와 눈을 놀라게 하였다. 42주의 많은 고을 원님들이 좌우로 늘어앉았고, 72명의 많은 기녀들이 앞뒤로 모시고 앉아서 琴瑟管絃 등의 五音을 방안에서 연주하고 있었으며, 金石匏土 등의 八音을 뜰에서 번갈아 연주하고 있었다. 술잔과 안주 그릇들은 뒤섞여 있어 한바탕 먹고 마시며 술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니 그야말로 성대한 술잔치였다.¹⁶⁾

<오유란전>에서 이생과 함께 공부하던 김생은 장원급제하여 평안감사를 제수받게 되자, 진사에 그친 이생을 평양 임지로 함께 가자고 한다. 이에 이생은 평양의 변화함을 들어 거절하지만 감사의 권유로 결국 평양에 따라가게 되는데, 위 인용문은 감사가 이생을 위로하느라 베푼 연석 장면 묘사이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로 차려진 잔치 앞에서 이생은 이런 잔치는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물러나고, 이 때문에 감사는 물론 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의 심사를 건드리게 되면서 감사와 오유란의 속임수에 걸려들게 된다.

이와 함께 백일장 개최와 장원 선발도 평안감사의 중요한 연중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진사전>에서 이진사는 바로 이 백일장에서 장원으로 선발된다.

16) 而來宣化高堂 鋪陳等節 忽驚於初到之耳目也. 四十二州官長 列坐於左右 七十二名妓女 侍倍於前後 琴瑟管絃五音 繁於房中 金石匏土八音 迭於階畔 杯盤狼藉 觥籌交錯 <오유란전>, 장효현 외, 『애정세태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이씨 진사 | 그 방을 보고 심중에 생각되 내 드르니 관서는 즈고로 문인
 지즈 | 만타하니 너 혼번 가 구경하리라 하고 이에 밧비 헝하야 영문으로
 드러가 슌혀보니 선화당 뜰에 구름 갓흔 차일은 반공에 들너스며 현대판에
 시부고풍 글데를 놓히 걸었는디 모든 선비 열좌하얏고 당상에 감스 | 당건
 청포로 단정히 안자스며 평양 서윤과 중군과 십이 비장이 각각 의관을 정제
 하고 뵈서스며 슈빅 명 통인과 삼빅여 명 기녀 | 룝의홍상에 응장성식으로
 좌우에 시립하얏스며 룝방관속과 영문하예 등 슈삼천 인이 디상과 디하에
 라렬하얏스니 그 인물의 변화함과 위외의 엄숙함을 이로 기록지 못홀너라.
 이씨 모든 선비 각각 화전을 펼치고 치필을 싸혀들고 지즈그를 자랑하야 글
 을 지을시 진스 또한 빅를시 이십운을 지어 선장하니라. 츠시에 감스 | 여러
 장 글을 쓰노을시 그 중에 빅를 일편이 잇스되 지면에 풍운이 니러나고 통사
 | 비등흠키 도격이 탁월하고 의스 | 광활하야 사름의 안목을 놀나이느니라.
 크게 아름다히 녀어 즉시 휘장 장원으로 빠힌 후 또 스십여 장을 취하야
 각기 데츠를 덩흔 후 그 봉니를 츠레로 써혀보니 장원은 이에 충청도 공쥬
 기하는 진스 리옥린이라.¹⁷⁾

이진사는 본래 평안도 인물이 아니므로 이 지역 백일장에 참여할 수 없
 었으나 이번은 예외로 다른 도나 읍의 인물도 참여할 수 있다는 평안감사
 의 특별 방을 보고 이 백일장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장원을 축하하는 잔치
 에서 김경패라는 기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위 인용문에서 ‘슈빅
 명 통인’이나 ‘삼빅여 명 기녀’라는 설정은, 당시 ‘대연’으로 명명되는 큰
 잔치에서도 기녀 수는 60~70 정도 규모였다는 점¹⁸⁾에서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백일장이 중요한 연중행사로 그 규모가 매우 성대하다는
 것은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연광정이라는 평양의 대표적

17) <이진사전>, 『활자본 고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7, 82면.

18) 송혜진, 「조선후기 관서지방의 공연 시공간과 향유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참조.

정자에서 이루어지는 연회나 대동강의 선유(船遊) 또한 단순한 감사의 유희를 떠나 평양 자체의 풍속, 풍물이라 할 만하다. <부용상사곡>에서 신임 감사는 부임 이후 마음에 드는 기녀를 만나지 못하자 사월 초파일 대동강 선유를 이용해 부용을 불러 겁탈하려 하는데, 이때 강에 배를 여러 척 띄워 묶어 놓고 이루어지는 많은 악공과 기생들의 공연과 거나한 술자리의 취흥이 눈앞에 보이는 듯 그려진다.¹⁹⁾

팔일을 당함에 대동강상에 선유를 비설홀시 슈빅 척 금범슈장은 향풍에
 느붓기고 구슬 등축은 스면에 조요하며 싱쇼고악은 강물을 혼드느니라 감스
 | 평양 서윤과 모든 비장으로 더브러 슈빅 명 기녀를 거느려 비에 오르니
 음식의 풍비흠과 위의의 장려흠을 이로 기록지 못홀너라...중략...좌우를 명
 혀야 비를 중류에 띄오니 큰 강에 바람이 고요하고 거울 갓흔 물결이 월하에
 몹앗는디 관현은 질통혀야 강상의 잠든 빅구를 놀니이고 청아흔 노리소리는
 반공에 썩러지며 춤추는 소미는 완만혀야 강풍에 느붓기니 취쥬흥장이 슈중
 에 조요혀야 대동강상이 솟발을 일웠느니라 감스 | 대희혀야 대빅을 기우려
 십여 비를 마시고 취흥이 도도혀야 용낭의 억기를 치며 대쇼월²⁰⁾

또한 감사가 관찰하는 평양이나 함흥의 명물로는 단연 기생을 들 수 있다.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많은 수가 기녀를 매개로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정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작품들 속에서 부임을 하는 것이든 유람을 하는 것이든 평양을 찾는 남성인물들은 으레 기녀와의

19) <옥단춘전>에서 이혈룡 또한 사월 초파일에 친구인 평양감사가 연광정에서 베푸는 화려한 연회에 거지꼴로 나타났다가 감사에 의해 대동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 연회에 참석하였던 기생 옥단춘의 눈에 들어 대동강 사공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후, 암행어사가 되어 평양에 돌아온 이혈룡이 출도한 곳 또한 대동강 선유 연회장이다.

20) <부용상사곡>, 『활자본 고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76, 68~69면.

만남을 갖게 된다. 즉 ‘평양에 간다’는 ‘평양 기생을 만난다’와 등가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천순(天順; 명나라 영종 때의 연호, 1457~1464) 초, 송도의 부잣집 자제 홍생은 젊고 수려한 외모에 풍류가 있고 글도 잘했다. 8월 보름이 되자 기생들과 놀아보려고 친구들과 배를 타고 평양으로 갔다. 강가에 배를 댔는데, 평양성의 이름난 기녀들이 모두 성문 밖으로 나와 눈길을 보냈다. 평양성에 사는 친구 이생이 홍생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²¹⁾

위 인용문은 <취유부벽정기>의 도입부로, 남성주인공 홍생과 기녀의 사랑을 다루는 서사는 아니지만, 홍생이 평양에 도착해 평양임을 실감하게 된 첫 번째 이미지가 성문 밖에 몰려나온 평양성의 이름난 기녀들이라는 점에서, 평양=기녀라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기녀들에 둘러싸이는 경험은 황홀하면서도 자칫 두려운 경험일 수 있다. 많은 작품들에서 평양에 가는 본인이든 주변인이든 물색의 변화함을 경계하는 것 또한 그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남성인물들에게 기녀와의 만남은 한 번은 거쳐야 할 당연한 경험이다. 이는 함흥 감영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월하선전>은 유일하게 함흥 관기인 월하선과 함흥 감사의 자제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감사의 자제인 직경은 함흥에 올 때부터 관기의 수청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함흥에 온 지 삼 일 만에 행수에게 아름다운 기녀를 천거하도록 한다.

는 함흥 풍경을 구경치 못했더니 금일이야 풍경 구경하다가 너갓튼

21) <취유부벽정기>, 김수연 외 편역,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122면.

어엿분 즈식을 보고 엇지 마음을 진정하리요 니 지금 미취 전니요 또한 소년
나라 한번 니연을 미즈미 엇더하요²²⁾

위 인용문에서 직경은 풍경 구경을 운운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아름다운 기생 구경이 포개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월하선은 이런 수청 요구에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맹세의 제문을 받고는 결합하지만 3년 뒤 감사가 만기가 되어 떠나게 되자 두 사람도 이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지역의 특성상 유명한 기녀들과 이곳을 찾은 남성들의 인연 맺기가 두드러지는데, 애정 관계이든 훼손 모의든 재색을 겸비한 기녀와 양반 자체의 만남은 낭만적이고 일탈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남성들이 평양의 명구승지(名區勝地)로서의 명성을 듣고 유람을 목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평양에 다다르니 십리 장림 푸른 수풀 원각을 반기는 듯 연광정에 올라서서
스면을 숲혀 보니 능라도 연기 속에 양류는 의의하고 모란봉 구름 아리
창송은 울울하며 부벽루에 빗긴 희에 금슈병풍 둘러잇고 승령전잠긴구름 학
의 소리 머러잇고 영명스 저문 쇠북 산승이 밧비 가며 더동강 푸른물결 정연
이 침벽하니 이 진짓 데일강산이라.²³⁾

<이진사전>에서 이진사는 평안도 강서 현령인 외숙을 방문하게 되는데, 길을 떠나기 전에 노모에게 “평양은 팔도 중 제일 名區勝地라 하니 왕래지로에 한번 구경하와 또한 흥회를 넓히고자 하나이다”라고 하고 길을 떠나 강서에 들렀다가 평양에 다다른다. 이후 평양 경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광정에 올라 사면을 둘러보는데, 그의 눈 속에 들어온 능라도,

22) <월하선전>,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0, 394면.

23) <이진사전>, 79~80면.

모란봉, 부벽루, 승령전, 영명사 등은 모두 평양의 이름난 누정(樓亭)과 고적(古蹟)이다. 남성 주인공들의 이런 평양 유람은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는데,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대체로 상투적인 묘사, 나열의 양상을 띠고 있다. 평양의 명승고적에 대한 이런 상투적 묘사는 평양이 유람지라는 것이 관념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처럼 관서 관북 지역은, 기녀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작품들 속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감사 관련 연회나 행사, 평양기생이라는 풍속과 명승지를 갖춘 유람지의 면모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문화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정치적 형상화

관서 관북 지역은, 북방이자 변방 지역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고소설 작품 속에서도 이들 지역의 군사적, 정치적 형상이 확인되는데, 관서 지역의 경우 주로 명청 교체기의 두 전란과 관련하여 압록강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 지방과 전쟁의 이동 경로가 부각되고 있으며, 관북지역은 전란 관련 소설에서 출정하는 인물들의 출신지로 거론되면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먼저, 17,8세기 동아시아 전란을 소재로 한 작품군 중, 강홍립의 요

24) 이는 15세기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의 도입부가 부벽정과 그 부근의 유람지로서의 면모를 현장감 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영명사의 부벽정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은 바로 동명왕의 궁궐인 구제궁이 있던 곳이다. 평양 성곽에서 동북쪽으로 2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래로는 긴 강이 흘러가고 멀리로는 끝없이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어 그야말로 빼어난 경치였다. 저녁이면 놀잇배와 장삿배들이 대동문 밖 나루터에 정박하는데,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부벽정을 여기저기 구경하고 마음껏 즐기다가 돌아간다. 부벽정 남쪽에는 돌층계가 있는데 왼편의 것은 청운계, 오른편의 것은 백운계라고 한다. 돌로 깎아 세운 화표주는 호사가들의 볼거리가 되었다. <취유부벽정기>, 120~121면.

녕성 원군 출정과 정묘호란을 소재로 한 <강로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무오년에 후금이 요양을 침범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는데, 이때 강홍립이 원수로 출정하게 된다. 강홍립은 국경 부근 의주에 이르러 통군정에서 평안북도의 선천군수 김응하가 이끄는 좌영 부대를 보병으로 영마전(요녕성)에 출정하라는 지휘를 내린다.²⁵⁾ 이후 명과 후금 간의 세력을 가늠하던 강홍립은 결국 누르하치에 투항하여 신임을 받아 정묘년에 후금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치게 된다. 강홍립의 군대는 먼저 국경의 의주를 습격한 후 평안북도 꾁산의 능한산성²⁶⁾을 치는데, 이때 의주성이나 능한산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싸워보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짐에도 강홍립은 무자비한 살상, 도륙 약탈을 지시해 순식간에 두 성은 참혹한 아비규환의 상황에 이른다. 이후 청천강 서쪽 유역에 이르러 안주성에 사람을 보내 화의를 도모하려 하지만 안주 절도사 남이홍은 “목을 자르는 장군은 있어도 강화를 하는 장군은 없다”²⁷⁾고 하면서 항거하겠다고 한다. 이에 강홍립은 다시 안주성을 치러 들어가 다시 도륙과 살상을 가하는데 앞서 두 성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잔인하고 참혹한 형상이다.

병사들을 몰아 동북쪽 모서리에서 곧장 공격하여 함락시키니, 남이홍은

25) 실제로 통군정은 의주읍성(義州邑城)에서 제일 높은 압록강 기슭 삼각산(三角山) 봉우리에 자리잡고 있는데, 서북방위의 거점이었던 의주읍성의 북쪽 장대(將臺)로서 군사지휘처로 쓰였다.

26) 능한산성은 전략적으로 서북방 제1선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의주 흥화진(興化鎭)에서 제2선인 안주에 이르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1010년(현종 1) 거란군의 제2차 침입 때 능한산성 일대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양규(楊規)의 지휘하에 6천의 고려군이 거란의 대병력을 섬멸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또 1627년(인조 5) 후금의 침략(정묘호란) 때에는 정주·선천·꾁산 등 평안도 일대의 백성들이 이 능한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적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27) “有斷頭將軍，無和好將軍” <강로전>, 신해진,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사, 2008, 188~189면.

목사 김준과 함께 군루에 앉아 분신 자결했다. 성안에 가득한 사람들은 노소를 불문하고 울부짖으며 허둥지둥 달아나 숨었다. 홍립은 한운과 함께 오랑캐 병사들을 나누어 독려하여 풀 베어 놓듯 살상하니, 시체가 거리를 메우고 유혈이 도랑에 가득한데, 거의 다 마구 찍어 죽인 것이었다.²⁸⁾

특히 안주성의 경우에 강홍립의 군대가 공격하여 함락되기 시작할 때 절도사인 남이흥이 목사 등과 함께 군루에 앉아 분신자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참혹함에 비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강홍립은 이후 평양과 황강(해주) 등의 조선 병력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평양에 이르러 평양성 수비대장을 따로 정하고 본인은 황해도 평산에까지 진군하여 강화 조약을 맺은 후에야 오랑캐 병력을 후퇴시킨다.

<강로전>에서 부각되는 지역은 국경의 요지인 의주와 능한산성이 있는 곡산, 그리고 평안북도에서 평안남도로 넘어오는 길목에 위치한 대도시 안주이다. 특히 의주는 강홍립이 조선의 군대로 출정할 때와 후금의 군대로서 조선을 침범할 때 기점으로 반복 거론되면서 국경의 정치적, 군사적 요지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의주는 <정생기우기>에서도 조선으로 들어오는 거점으로 나타난다. 정생은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병자호란으로 서울까지 내려온 오랑캐에게 붙잡혀 있다가 예순이 넘어서야 조선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의주를 거쳐 고생 끝에 서울 집을 찾아가지만, 아들이 평안감사가 되어 있다는 소식 듣고 다시 평양으로 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주의 경우, <주생전>에서 주생이 왜란 당시 명나라 원군에 서기로 참전하는 과정에서 거론된다. 우여곡절 끝에 선화와의 혼인을 앞두게 된 주생은 때마침 조선에 왜적이 침입하고 명나라가 원군을 출병하

28) 驅兵直衝陷，自東北角，南以興與牧使金俊，坐軍樓自焚。滿城之人，若老若幼，啼呼奔竄。弘立與潤，分督胡兵，若刈草菅，尸填街巷，血滿溝渠，亂斫幾盡。 <강로전>, 189면.

게 되자 서기로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주생이 안주에 이르러 백옥루에 올라 시를 짓고, 송경에 왔을 때 상사병으로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의 간략한 서술에서도 안주가 거론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안주가 명나라 원군의 남하 과정에서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강로전>과 함께 전쟁 과정에서 이 지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작품은 <김영철전>이다. 김영철은 평안남도 영유현 출신으로 후금의 침략 당시 명나라의 원군으로 출병한 강홍립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때 김영철의 부대가 처음 집결한 곳은 평안북도 창성이었다. 이후 김영철은 후금, 명, 조선을 넘나들며 전쟁포로와 이방인의 경험을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본인의 경험을 자식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말년에 평안도 자산군 자모산성²⁹⁾에서 성을 방비하며 아들들과 일생을 마친다.

<김영철전>에서 명나라 원군으로 구성된 김영철 부대가 처음 집결한 곳은 평안북도 창성으로, 이 또한 의주와 마찬가지로 북쪽으로 압록강을 접하고 있는 국경 지역이었다. <최척전>에서도 조선으로 돌아간 최척의 생사를 모르고 항주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옥영은 요녕에서 조선국경까지는 겨우 나흘이나 닷새면 되니 최척이 고국으로 돌아났을 거라 하면서 자신이 찾아가 만약 죽었다면 창주(창성)에 가서 원혼을 위로한 후 선산에 장사지내겠다고 한다.

이처럼 관서 관북 지역은 특히 <김영철전>이나 <강로전>과 같은 전쟁 서사를 통해 의주나 창성과 같은 국경 지대와 전쟁의 주요 거점과 이동 경로가 실사에 근접하게 설정되고 있으며, 북방 변경 지역으로서의 면

29) 청룡산성과 흘골산성, 휴류산성, 황룡산성과 함께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지키던 위성들 중의 하나로, 평양성의 북쪽 방위를 담당하였다. 평성시 자모산 일대에 있던 이 산성은 의주로부터 안주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요새 중 하나였다.

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단, 17, 8세기의 동아시아 전란이라는 실제 역사를 근간으로 한 서사라는 점에서, 또한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체험이 주가 되는 작품들로 관서 지역은 주로 이동 통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자체가 전경화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강로전>의 안주성 전투에서 안주성 절도사가 분신자결한 것이나, 강홍립이 평양성에 이르러 재능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방을 붙였을 때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 등을 통해 전란의 참화 속에서도 절의를 지키는 지역이라는 것이 형상화되고 있다.

3) 역사적 형상화

관서 관북 지역은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관서 지역의 평양은 기차 조선의 수도이자 고구려의 수도로서 가장 오래된 고도이고, 관북 지역의 함흥이나 북청 역시 조선 건국과 밀접한 지역이며, 두만강 부근은 발해의 역사와 밀접한 지역인데, 이런 역사적 정황이 작품들에 긴밀히 녹아들어 있다. 특히 역사적 연원, 내력 등이 소회, 감회의 감정과 더불어 서술되고 있다.

먼저, 평양의 역사성은 <취유부벽정기>와 <부용상사곡>에서 형상화되고 있다.

평양은 옛날 조선의 수도였다. 중국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기자를 찾아가 세상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물었다. 기자가 우임금 때부터 전해오던 홍범구주를 일러주자 무왕은 그를 이 땅에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이곳의 뛰어난 경치로는 금수산, 봉황대, 능라도, 기린굴, 조천석, 추남허 등이 있는데 모두 오래된 명승지이다. 영명사의 부벽정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은 바로 동명왕의 궁궐인 구계궁이 있던 곳이다……감홍을 이기지 못하여

작은 배를 타고 달빛 아래 노를 저어 상류로 올라가며 이 흥취를 다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했다. 가다 보니 부벽정에 이르게 되었다. 갈대밭에 배를 묶어 놓고는 계단을 밟고 정자 위로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 주위를 둘러보며 낭랑한 소리로 시를 읊조렸다. 달빛은 밝고 물결은 잔잔한데, 기러기는 모래밭에서 울고 학은 소나무에서 날아 올랐다. 그 정경은 마치 달나라나 신선세계 같았다. 흥생이 옛 서울 평양을 바라보니, 흰 망루는 안개에 싸여있고 외로운 성에 물결만이 부딪히고 있었다. 흥생은 옛 나라의 흥망을 서글퍼하며 시 6수를 지었다.³⁰⁾

공중 | 수일을 편히 쉬고 각처 풍물을 완상할시 문져 슈령던에 첩알흐니
태빅산의 느린 신인 유상이 완연흐고 기즈룽에 레빅흐니 송츄만 푸르렀고
팔도유풍 막연이오, 조천굴 도라드니 텃마는 간 곳 업고 동명왕의 넷 자취를
무를 곳이 바이업다.³¹⁾

<취유부벽정기>와 <부용상사곡>은 모두 평양의 역사적 유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방식은 다소 다르다. <취유부벽정기>의 경우, 흥생과 관련 없이 도입부에서 평양의 고도로서의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³²⁾, 흥생 등장 이후에는 부벽정에 치중하여 부벽정에 감응하는 흥생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흥생이라는 한 개인의 소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비해 <부용상사곡>은 주인공 김유성의 유람

30) <취유부벽정기>, 122면.

31) <부용상사곡>, 14면.

32) 이는 <택리지-팔도총론>의 기술과 흡사하다.

옛날 요임금 때 신인(神人)이 평안도 개천현 묘향산 박달나무 아래 석굴에서 태어났다.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고, 구이(九夷)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 연대와 자손에 대해서는 기록할 수가 없다. 그 뒤에 은나라의 기자(箕子)가 조선에 봉해지면서 평양에 도읍했다. 그의 후손 기준에 이르자 연나라 사람 위만(衛滿)에게 쫓겨났다...한나라 무제 때 망했다. 이후 한나라에서 백성만 옮기고 땅은 버리자 주몽이 말갈에서 일어나 평양을 차지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다. <택리지-팔도총론/ 이중환 저, 허경진 역, 『택리지』, 서해문집, 2007, 28~29면.>

여정 속에 역사적 유적이 포함되어 있어, 김유성이 이들 유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사회의 내용은 상투적이다. 특히 조천굴에 대한 김유성의 사회는 이색(李穡)이 부벽루에서 노래한 ‘기린마는 돌아오지 않으니 천손은 어디에 있느냐(麒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라는 구절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³³⁾, <취유부벽정기>의 홍생의 시 구절과 비교해 보면 김유성이라는 개인의 사회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에 간 동명왕은 아직 소식 없으니	聖帝朝天今不返
세상일을 의지하여 말할 사람 없구나!	閑談落世竟誰依
그가 타던 황금수레 기린마도 없으니	金輦麟馬無行迹
풀 우거진 그 길에는 스님이 홀로 가네.	輦路草荒僧獨歸 ³⁴⁾

이후 김유성은 물을 따라 내려가며 경치를 완상하다가 평양의 대표적 정자인 연광정에 이른다. 그런데 이때 연광정에 대한 묘사는 연광정에서의 화려한 연회와 같은 풍류, 유희과는 거리가 있다.

거름을 도로혀서 물을 따라 내려가니 강식이 광활하고 슈세는 평온하니
 벽운은 취수에 아래엿고 량량빅구는 평사에 멀엇스며 금범슈장은 바람결에
 낙긔는 곳에 흐 덩즈 강을 림헛엇스니 취외홍란은 반공에 소삿스며 현
 판에 크게 썼스되, ‘데일강산(第一江山)’이라 헛엇스니 이는 명나라 씨 한림
 편수 주지번이 조선에 스신으로 왔다가 이 덩자에 올는 풍광을 구경 헛고

33) 이는 해모수의 아들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평양 부벽루 뒤편에 있는 기린굴로 들어가 땅 밑을 거쳐 대동강 상의 조천석으로 나와 천상계로 올라갔다고 하는 고구려 신화에 기반한 것으로, 조천석은 대동강 가운데에 있는 반석인데 기린마의 발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한다.

34) <취유부벽정기>, 124면.

크게 칭찬하며 현판을 만드라 텨하데일강산이라 쓰려 후다가 널으디 우리 중국의 금릉물식이 가히 이에 느리지 아니리라 호고, 다만 데일강산이라 쓴 바이오, 그 후 병화를 당호야 그 네 글즈 중에 물 강 즈를 일흠으로 필가에 유명호 박하 윤판서순이 다시 물 강 즈를 썼스니 이 곳은 이에 련광덩이라.³⁵⁾

명나라 사신인 주지번(朱之蕃)이 평양을 들렀다가 연광정에서 본 대동강의 경관에 대해 ‘天下第一江山’이라고 했다가 ‘天下’를 뎨 일화와, 현판의 ‘江’자를 명필가 백하(白下) 윤순(尹淳)이 쓴 내력 등이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는 것이다.³⁶⁾ 이처럼 특정 지역의 물물이나 유적에 여러 이야기가 포개어 있는 것이 역사성이자 그 지역이나 유적의 약호화³⁷⁾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부용상사곡>에서 김용성의 평양 유람 과정에 보이는 심리 묘사는 15세기 김시습의 유람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역사적 공간 인식이 이 시기에 약호화된 공간 인식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관념은 고정되고 개별적인 심사는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³⁸⁾

35) <부용상사곡>, 14~15면.

36) <택리지>에도 이 현판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주지번은 여섯 글자를 다 쓰고 돌아갔으나 후에 청나라 황제가 앞의 두 글자를 없앤 것으로 되어 있다. (명나라 때 주지번이 사신으로 왔다가 연광정에 올라 상쾌하다고 부르짖으며, ‘천하제일강산(天下第一江山)’이라는 여섯 글자를 제 손으로 쓴 현판을 걸었다. 그런데 정축년에 청나라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던 날 이 현판을 보고 “중원에 금릉과 절강이 있는데, 여기가 어찌 제일이 될 수 있으랴” 하면서, 사람을 시켜 부숴버리게 했다. 그러나 잠시 뒤 그 글씨가 훌륭한 것을 아깝게 여겨, ‘천하’라는 두 글자만 툇질해서 없애버리게 했다. <택리지> 평안도 평양부, 32면.)

37) 특수한 공간이 소설의 배경으로 자리잡을 때, 그 공간이 함축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나 특수한 의미소를 역시 텍스트 생성을 위한 약호로 기능하게 된다.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월인, 2002, 33면.

38) 작품 도입부의 평양 묘사를 보면 “차흠다 조선의 승디강산 의론호면 평양이 데일이

관북 지역의 경우 이런 역사적 공간의 형상이 <이진사전>에서 두드러진다. 이진사는 김경패라는 평양의 기생을 첩으로 들이면서, 대대로 첩을 들이면 화를 면하지 못했던 내력에 의해 선조가 꿈에서 계시해 준 대로 집을 나와 삼년을 지내야 했는데, 이때 “내 장초 어이 삼 년 세월을 보내리오. 강산을 널리 구경하야 수회를 풀니라”하면서 함경도 유람을 시작한다. 함경도 유람 일정은 백두산, 함경북도 회령의 운두산성, 함경남도의 북청,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로 이어진다. 이진사의 유람은 백두산과 석왕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역사적 내력을 들은 후에 자신의 소회를 시로 지어 덧붙이는 공통된 양상을 보인다.

먼저, 백두산의 경우 이 지역이 발해국의 고도였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지역의 경우 이진사 본인의 소회 시 대신 남이 장군의 시를 읊조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몬져 함경도에 드러가 빅두산에 올라 숙신 시와 불해국의 고도를 굽어보고 남이 장군의 지은 바, ‘白頭山은 石磨刀盡이오(빅두산의 돌은 칼을 가라다하고), 豆滿江流는 飲馬無 | 라 (두만강의 흐르는 물은 말이 갈시여 업서 지도다)’ 하는 글구를 읊조리다가 느려와...³⁹⁾

라. 장성일면용용슈와 대야동두덤덤산은 고려 문장 김황원의 절창이라. 통라도 연곡 속에 흥업은 분운하고 모란봉 느진 비에 황화는 란만흔디 대동문 안 흔 모룽이 쇼도 링락흔 흔 적은 집 후원 별당...<부용의 상사곡>, 3면”이라고 하여, 고려 때 시인 김황원의 시구가 인용되고 있다. 김황원은 연광정에 올랐다가 그곳에 있는 여러 시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이 한 수 지어보고자 하루 내내 깊이 생각했지만, “긴 성 한쪽에는 넘실넘실 물이 흐르고 큰 들판 동쪽에는 점점이 산이로다(長成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 라는 시구만 짓고 시상이 막혀 더는 짓지 못하고 통곡하며 내려갔다는 일화가 전하는데(<택리지> 평안도 평양부, 31~32면), 이 시구가 평양을 묘사하는 데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이 시구는 평양을 대상으로 하는 <옥단춘전>, <이진사전>, <이춘풍전> 등에서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

다음 유람지는 함경북도 북쪽 두만강 경계인 회령(會寧)의 운두산성(雲斗山城)으로, 이곳에서 이진사는 운두산성에 얽힌 송황제의 내력을 듣고 이를 차탄하는 시를 짓는다.

회녕에 다다르니 이곳은 오국성 넷터이라. 북녘 운두산 봉상에 흰 큰 무덤이 있고 그 아리 흰 연못이 있스며, 못가 석벽에 운연이란 두 글자를 전조로 삭엿거늘 토민다려 무르니 더답호되, “이 무덤은 송나라 흠종황제 조환의 무덤이니 넷적 금나라 태종황제 완인 오걸미 지나 송국을 쳐 흠종을 사로잡아 이 싸히 귀양보내니 운연이라 흰 것은 곳 흠종의 쓴 바시오. 숙종 삼십팔 년은 곳 청국 성조 강의 오십일년에 청국 오를 총관 목극등이 조선과 청국의 디계를 덩허려 왔다가 그 무덤을 파 적은 비를 엿으니 송데지묘라 쓴 네 글자를 보고 즉시 그 무덤을 봉축호얏고 지금까지 밧가는 농부들이 왕왕히 무덤 엽히셔 승녕통보란 돈을 엿느이다” 호거날 진스 | 이 말을 듯고 이에 일슈 시를 지으니 기 시에 왈

風塵漠上에 歎飄零호디	풍진막북에 표령흙을 탄식호는디,
一片荒墳草色靑을	흔조각 거즌 무덤에 풀빛이 푸르럿도다.
當日에 若聽李綱策이면	당일에 만일 리당의 꾀를 드럿더면,
肯教玉駕踏湖庭가	엇지 옥가로 호야곰 오랑키을 붉아스리오 ⁴⁰⁾

금나라에 망한 북송의 두 황제가 귀양왔다가 죽음을 맞이한 곳이며, 숙종 때 청나라의 목극등이 백두산의 정계비 문제로 왔다가 그 중 흠종의 묘로 추정되는 무덤을 발견한 후 봉축을 쌓게 하였다는 운두산성의 내력을 토민들의 입을 통해 상세히 전해들은 후에 그 소회를 시로 붙이고 있

39) <이진사전>, 113면.

40) <이진사전>, 114면.

다. 그런데 이때 토민들이 전하는 운두산성의 내력은 <택리지>에서 소개하고 내용과 그대로 일치한다.⁴¹⁾ 덧붙인 시 또한 금태종에게 조소를 당하고 타지로 압송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북송 황제의 최후⁴²⁾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한탄의 정조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진사가 가정의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방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는 평소의 감회가 내력과 결합된 것이라기보다는 운두산성이라는 유적을 방문하여 그 내력에 일시적으로 감응한 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다음 유람지는 함경남도의 요지이자 숙신의 도읍인 북청(北靑)으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건국에 일등공신 역할을 한 청해백(靑海伯) 통두란(通杜蘭)의 내력을 들은 후에 역시 시를 짓는다.

다시 길에 올라 북청 썩히 이르러 흔 곳에 다다르니 큰 굴이 있고 그 압히 큰 반석이 잇거날, 진스 | 촌옹다려 무르니 답왈 “ 이 토굴은 청희빅 통두란의 잇던 곳이라” 흐거날, 진스 | 놀래여 즈세흔 연유를 알고져 하니, 촌옹

41) 두만강을 따라서 회령의 운두산성에 이르러서 성 밖을 보니 큰 언덕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고장 사람들이 황제릉이라고 지칭하였다. 청나라 사신 목극동 등이 정계비문제로 조선에 왔을 때 이것을 사람을 시켜 파헤치려다가 무덤 곁에서 짧은 비갈을 얻었는데 그 위에 송제묘라는 네 글자가 쓰여 있으므로 목극동 등이 곧 그 봉축을 크게 쌓도록 하고 갔다. 그래서 금나라의 오국성이 곧 운두산성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송제라고 한 것이 휘종인지 흠종인지 알 수 없다...(중략)...언덕 위에서 발을 갈던 이 고장 사람들이 가끔 옛 제기, 술항아리, 술, 화로 따위를 발견하는데 이 무덤은 선화 휘종릉이며 나머지는 궁인이나 시종하던 벼슬아치들의 무덤인 듯 하다. 이 고장 사람들이 전하는 말로는 두만강 북쪽으로 10여리 되는 곳에 또 황제릉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흠종의 능인 듯하나 분명하지는 않다. <택리지>함경도-앞의 책, 40~42면.

42) 금에 패한 북송의 두 황제 휘종과 흠종은 평민 백성의 소복을 입고 태조묘 앞에 꿇어앉아 ‘견양례(牽羊禮)’를 올린 후에 금태종을 알현하는 치욕을 당하였고, 한주 편원자성을 거쳐 오국두성으로 압송되어 결국 천회13년(1135년)과 해릉왕 정용 6년(1161년)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다.

왈 “청희벽의 본성은 악이니 고려 인종 썩에 송나라 고종이 금국으로 더불어 싸울시 고려에게 구원병을 청하거늘 고려 조정이 군사를 도발하야 보낼시 북방의 혼 녀즈 | 그 늙은 아버니를 더신하야 송국에 가 무목왕 악비의 휘하에 잇서 효용이 절륜하야 여러 번 공이 잇슴이, 악비 그 녀즈임을 알고 크게 괴특히 녀여 갖가히 하얏더니 그 후에 악비 참소를 맞는 죽음이 그 녀즈 | 본국에 도라와 혼 아달을 나코 인하야 북도에 거하고 그 자손이 류락하야 녀진 짜히 드러가 성을 통이라 하고, 그 칠세손 두란이 조선 태조를 도아 공이 잇서 청희벽을 봉하고 성을 리시를 주시고 일흠을 갖쳐 지란이라 하얏더니, 명철보신하기로 그 고향 북청에 도라가 홀로 토굴에 처하야 세스를 니져바리고 즈손이 음식을 가져다가 반석 우히 노흐면 취하야 먹고 여년을 맞쳤느이다.” 하거날, 진스 | 이 말을 듯고 탄식흠을 마지 아니하고 이에 혼 노력을 지으니 기 가에 왈

將門有種兮 乃生英雄이로다

장슈의 집에 시 잇슴이여 이에 영웅이 삼기도다.

杖劍扶眞主兮 開國元功이로다

갈을 잡고 진주를 붓들미여 기국혼 옷듬 공이로다.

不忍泛舟五湖兮 身歸故鄉이로다

춤 비를 오호에 띄우지 못함이여 몸이 고향에 도라왔도다.

靑山은 不老하고 水長流兮

千秋名姓香이로다

푸른산은 늙지 아니하고 물은 길이 흐름이여

천추에 일흠과 성이 향기롭도다⁴³⁾

이 또한 통두란이 원나라 말, 많은 부하를 이끌고 귀화하여 함경남도 북청에 거주하면서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이씨 성을 하사받았으며, 이어

43) <이진사전>, 115면.

조선 개국공신으로 청해백에 봉해졌다는 청해 이씨의 시조 내력과 상당히 부합된다.⁴⁴⁾ 이때 읊은 시는 앞의 시들과 달리 감탄, 칭송의 감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조선의 개국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길을 떠나 함경남도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에 이르는 데, 이때는 내력을 듣는 대신에 대웅전에 나아가 빌고 꿈에서 합천 해인사로 가라는 노승의 몽시를 들은 후 길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석왕사는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무학대사(無學大師)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해몽을 듣고 그 기원을 위해 창건한 절이라고 전해지는데⁴⁵⁾, 다른 지역들을 유람할 때와 달리, 이 내력이 서술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알려진 내력이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잘 알려진 내력을 서술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고 몽시를 듣고 그대로 따르는 등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만났던 것과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력을 체화(體化)하고 있는 것이다.

44) 청해이씨(靑海李氏)의 시조 이지란(李之蘭)은 조선 개국공신으로 자가 식형(式馨), 시호가 양열(襄烈)이다. 《황송통보(皇宋統譜)》에 의하면 이지란은 남송(南宋)의 충신 악비(岳飛)의 다섯째 아들 악정(岳霆)의 6세손이라고 한다. 이지란의 본명은 퉁두란(佟豆蘭)으로 아버지 아라부카(阿羅不花)는 여진의 금패천호(金牌千戶)였다. 아버지에 이어 천호가 되었다가 원나라 말기 1371년(공민왕 20) 많은 부하를 이끌고 귀화하여 함경남도 북청(北靑)에 거주하면서 이성계 휘하에 들어가 이씨 성을 하사 받았으며, 이어 조선 개국공신 일등에 책록되고 청해백(靑海伯)에 봉해졌다고 한다.

45) 이능화(李能和)의 《조선불교통사》에 따르면 석왕사 창건은 단지 숭불호법을 부회한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로는 1377년(우왕 3)에 이성계는 정몽주(鄭夢周)·이화(李和) 등과 함께 광적사(廣積寺)에 있던 대장경(大藏經) 1부와 불상 및 법기(法器)를 석왕사에 옮기고 임금과 나라의 복을 빌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성계가 석왕사로 대장경을 옮긴 1377년 이전에 이 절이 세워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성계는 젊은 시절에 석왕사에서 가까운 설봉산 귀주사(歸州寺)에서 독서를 하고 지냈으며, 이성계와 무학대사에 얽힌 이야기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석왕사의 창건은 이성계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관서 관북 지역의 역사적 형상화 속에서,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라는 고도로서의 역사성과, 발해의 옛땅이자 조선 건국의 주축이 되는 땅이라는 역사성이 이를 체험하는 작중 인물들을 통해 당대의 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관서 관북 지역 형상화의 특징과 의미

1) 지리지적 사실에 충실한 형상화

앞 장에서 고소설 속 관서 관북 지역의 형상화 양상을 문화, 정치, 역사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형상화는 대상이나 서술 방식, 환기되는 분위기나 이미지 등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도 공통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이 지역을 다루는 데 있어 지리지적 사실과 상당히 부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리지는 그 지역의 지리는 물론 역사와 문화, 풍속까지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지리지적 사실에 부합된 형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소설의 내용이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실사와 허구가 뒤섞인 것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 지역을 다룬 작품 중에 실재 소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많은 것도 이와 연관된다.⁴⁶⁾

이런 양상은 먼저, 전란 관련 작품들에서 두드러진다. <강로전>의 경우 강홍립을 대원수로 하는 명나라 원군의 북방 원정 행로가 대동강과 평양을 지나 국경의 요충지인 의주를 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묘년에 강홍립이 후금을 이끌고 다시 조선을 쳐들어올 때 또한 의주부터 통과

46) <부용상사곡>은 성천 기생 부용이 소재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고, <김영철전>이나 <강로전> 또한 실사를 원천으로 하고 있다.

하여 평안북도 꾀산의 능한산성, 청천강 유역, 평안남도의 안주성, 평양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로가 관서 지방의 북쪽 경계인 의주부터 남쪽 평양까지의 지리적 위치에 부합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선 침략의 과정은 정묘호란 당시의 후금군의 남하 경로와 그대로 부합된다.⁴⁷⁾ 이는 소설 내에 만들어진 지리 설정의 현실성과 역사적 사건 속 지리 설정과의 부합을 통한 사실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3장에서 다루었듯이, 다른 작품들에서도 의주나 안주, 창성 등이 지나는 국방상 요지이자 거점이라는 지리지적 사실⁴⁸⁾과, <김영철전>의 평양 방비성인 자모산성의 지리지적 사실이 작품 속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전란 관련 작품들에서 지리 설정과 관련된 사실적 반영, 형상화가 나타났다면, <이진사전>이나 <부용상사곡> 같은 기녀와의 애정담을 다룬 작품들에서는 그 지역의 유적에 대한 지리지적 기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진사전>에서의 함경도 회령의 운두산성, 북청의 청해백통두란 고사와, <부용상사곡>의 연광정 현판 관련 일화가 대표적이다. 이들 작품 이외에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에서 단군과 기자, 동명왕의

47) 정묘호란 당시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점령한 후금군의 주력은 용천·선천을 거쳐 안주성 방향으로 남하하였다. 조선군은 꾀산의 능한산성(凌漢山城) 등에서 후금군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후금군의 침입이 조정에 알려지자 인조는 장만(張晩)을 도체찰사로 삼아 적을 막게 하고, 여러 신하를 각지에 파견하여 근왕군(勤王軍)을 모집하였다. 그동안 후금군은 남진을 계속하여 안주성을 점령하고 다시 평양을 거쳐 황주까지 진출하였으며, 평산에 포진하였던 장만은 개성으로 후퇴하였다. 이는 <강로전> 속의 경로나 정황과 그대로 일치한다. 다만, 이 후금군을 강홍립이 아니라 누르하치의 동생이자 슈르하치의 차남인 아민이 이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48) 의주목: 의주는 국경의 첫 고을이다. 심양으로 통하는 길목인데, 고을 관아는 압록강가에 있다.

안주목: 평양 서쪽 100여 리 되는 곳에 안주가 있다. 안주 동북쪽은 영변부다. 산세를 따라 성을 쌓았는데, 가파르고 험해 철옹성이라 부른다. 평안도 일대에서 외적을 막을 만한 곳을 오직 여기뿐이다. <택리지>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거나 평양의 각종 명승, 유적들을 나열하고 묘사하는 것, 연중행사인 백일장이나 연광정 연회, 대동강 선유 등이 나타나는 것 또한 평양의 실제 역사와 문화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지리지적 사실에 충실한 형상화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관서 관북 지역은 뚜렷하게 작품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지리지적 사실에 충실하다는 것은 나아가 이들 작품들 속의 관서 관북 지역이 작가의 체험보다는 인문지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상화된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⁴⁹⁾ 실제 앞서 언급한 평양의 역사나 유적과 풍물, 전란 작품 속 전란의 경로, 함경도의 유적과 내력 등은 지리서나 역사서 등을 통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 자료들을 통한 간접 경험, 인지되어 있던 사실이 작품 속에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그럴 때, 이런 지식,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작가 층일수록 작품 속에서 지역과 긴밀한 서사를 전개하기가 자유롭고 또 풍부한 서사를 엮어 낼 수 있는 반면, 관련 지식이 한정적일수록 관습적인 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지역과 긴밀한 서사에 긴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평양이라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평양의 유적이 나 풍물들이 다뤄지는 양상이 큰 편차를 보이는 동시에 작품 간에 유사한 묘사나 설정이 나타나는 데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⁵⁰⁾

그러나 무엇보다 많은 작품에서 지리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형상화

49) 김시습과 같이 관서 지방을 유람한 체험이 확인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체험이 그대로 지역 형상화와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앞서 역사적 형상에서 지리적 것처럼 작가를 알 수 없는 <부용상사곡>의 평양 묘사나 소회 토로와는 분명 변별되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회의 개별화라고 볼 수 있다.

50) 물론 시대에 따라, 또 이야기의 성격에 따라 같은 지역이라도 관심사나 비중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대를 막론하고 기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상은 관서 관북 지역 중에 관북 지역을 다룬 작품이 적다는 실상을 설명하기에 유효하다고 본다. 본 논의에서 관서 관북 지역을 표제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관북 지역을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이진사전> 한 작품뿐이었는데, 그 한 작품 속의 관북 지역, 즉 함경도 지역의 형상이 바로 앞서 언급했던 ‘지리지적 사실에 충실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함경도 지역의 경우 평안도 지역보다 훨씬 변방이면서 주로 유배지였기 때문에 체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지리지 등을 통한 간접 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자료나 정보가 한정되어 있으며⁵¹⁾ 그 또한 <이진사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지식, 자료로 편중되어 있다면, 이 지역을 배경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창작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유배 체험을 한 경우에 여성과의 만남 등 다양한 경험을 기술하고 있음에도⁵²⁾ 소설 작품에서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 특히 고소설 대부분에서 다루어지는 남녀 간의 애정 이야기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⁵³⁾

51) 조선초기 함경도에 대한 관심이 태조의 탄생지로서 왕실권위를 선양하기 위해 그들 조상이 입신하여 세력을 키웠던 동북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이 지역에 대한 위상을 높이려는 의지가 강하였던 데 비해, 16세기 이후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왕실의 권력이 안정됨에 따라 함경도에 대해 풍패지향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강조되지 않았고 군사적 관심이 유지되게 되는데, 이는 함경도라는 지역이 조선 전체에서 지나는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의 상업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1~3면.

52) 조선후기 학자인 김려(金鑣 1766~1822)는 유배지인 함경북도 부령에서 그곳의 풍정, 신분을 뛰어넘는 당대 민중들과의 우정, 그리고 한 여인을 향한 애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연작악부시를 비롯해 여성 인물 전(傳)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연희라는 여성 인물과 관련된 시나 전이 두드러진다고 한다. 권경록, 「변방에서 부르는 노래-경성, 부령, 종성, 김태준 외, 『문학지리, 한국인의 심상공간』, 논형, 2005, 156~159면.

53) 자료나 지식의 문제 이전에 일차적으로는 함경도 지역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이야기, 특히 사랑 이야기의 창작을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함경도는 조선 건국 초기에 태조의 탄생지라는 것이 강조된 것 이외에 일찍부

결국 고소설 속에서 관서 관북 지역은 역사나 정치, 문화적으로 당시 지역의 실상과 부합되는 형상을 보이는데, 이는 이 지역 배경 작품들이 실제 가보지 않고도 지리서나 역사서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런 전제 하에서 관북 지역을 다룬 작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다.

2) 절강 지역의 환유 공간, 평양

이 지역의 압도적 배경인 평양은 여러 면에서 중국 배경 소설 속 절강 유역과 닮아 있다. 무엇보다 강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이자 기생과 풍류객들의 만남의 도시라는 점이 그렇다.⁵⁴⁾ 강남의 소주와 항주, 그리고 절강 항주의 서호 유역은 16,7세기부터 조선의 문인들에게 애호되었던 지역으로, 17세기 애정 전기에서 주 배경으로 설정되었고⁵⁵⁾, 그 이후 또 하나의 관습처럼 17세기의 다른 작품은 물론 그 이후의 많은 작품들 속에서 낭만적이고 유희적인 공간의 대표적 형상을 띠게 되었다. 이는 소주와 항주가 작품의 핵심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는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옥루

터 변방의 군사지역이며, 평안도의 안주나 평양 같은 변화하고 유희적인 대도화가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으므로, 그런 분위기나 배경에서의 사랑 이야기는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흥 기생 월하선과 감사의 자제와의 사랑을 그린 <월하선전>의 경우도, 이때 함흥은 다른 작품의 평양에 대체되는 공간일 뿐이고 함흥 자체는 전경화되지 않는다. 또한 결국 이들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떠난 곳은 평양으로, 평양이 이런 사랑 이야기를 다루기에 익숙하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다.

54) 신장섭은, 신평수의 <관서약부>를 통해 관서 지역의 행정과 자연지리, 유물과 유적, 인물과 풍속 등을 상세 항목화하여 소개하면서, 도시의 하위 항목 안에서 평양을 '항주와 같은 평양'으로 명명하면서 평양과 절강 유역의 유사한 분위기를 지적하였다. 신장섭, 『관서의 역사와 문화』, 북스힐, 2007.

55) 정민, 「16,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몽>에서 극치에 달한다. 그런데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부용상사곡> 속 부용의 대동강 투신 관련 일련의 서사가, <옥루몽> 속 항주 기생 강남홍의 전당호 투신 관련 일련의 서사와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부용상사곡>에서 부용은 김용성을 한양으로 떠나보내면서 후원 별당인 추수헌(秋水軒)에 올라 김유성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연연해하는데, 이는 <옥루몽>에서 강남홍이 연로정이라는 역정 정자에 나와 전별의 술자리를 하고 나귀를 타고 떠나는 양창곡을 두고두고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과 풍경 묘사까지 거의 일치한다.⁵⁶⁾ 이후 소주자사인 황여옥과 평안감사는 수청을 거부하고 두문불출하는 강남홍과 부용을 겁탈하기 위해 각각 5월 5일 전당호 노젓기 경주와 사월 초파일 대동강 선유를 계획한다. 이때 소주자사와 평안감사가 먼저 배에 나와 앉아 강남홍과 부용을 맞이하는 모습⁵⁷⁾부터 겁탈하려는 과정, 이를 피해 물에 뛰어드는 상황 등

56) 강남홍은 정자 난간에 홀로 서서 길 떠나는 나그네를 아득히 바라보았다. 첩첩이 쌓인 먼 산은 석양빛을 받아 들쭉날쭉하고 아득한 들판 빛은 저녁 안개를 머금고 평평이 펼쳐져 있다. 푸른 나귀 한 마리가 문득 간 곳을 모르게 되자 숲 속의 새소리는 바람결에 지저귀고 하늘 끝 돌아가는 구름은 비를 머금었는지 어둡했다. <옥루몽>, 89~90(김풍기 역, 『완역 옥루몽』 1, 그린비, 2006.)

이씨 용낭이 뒤피히 올라 공작의 횡진을 바라보니 텅텅한 먼산은 느진 벼를 짜여 푸르렀고 망망한 들빛은 검은 연기에 널넛는디 혼덤 푸른 라귀의 가는 곳이 점점 멀더니 나중에는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아니코다. 만수 풀스이의 시소리는 바람에 지저귀며 하늘가에 도라가는 구름은 숲흔 괴식을 띄엿는지라. <부용상사곡>, 42면.

57) 머리에는 오사절각모를 쓰고 몸에는 비단으로 지은 학창의를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야자대를 가로질러 맸으며, 난간에 기대서 느긋하게 흥접선을 흔들고 있었다. 취한 듯한 눈으로 몽롱하게 앉아 있으니, 그 방탕한 모습이나 행동거지, 험하고 거친 기상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강남홍은 지척에 있는 맑은 물결로 자신의 눈을 씻어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 문안을 올리고 항주 기생을 따라 앉았다. <옥루몽>, 103면.

감스의 거동을 보니 오사당전을 머리 우회 빗기 쓰고 청사록포를 압자락을 헛쳐 몸에 걸치스며 혼 팔을 붉은 비 란간에 걸치고 혼 손으로 흥라선을 흔들며 취안이 몽롱하야 안자스니 방통흔 용지와 추솔흔 기상이 지척청파에 그 보던 눈을 씻고져 흘지라

은 묘사까지 그대로 일치한다.

①두 자사가 양쪽 고을의 기생과 악공을 데리고 정자에서 내려와 배에 올랐다. 큰 강엔 바람이 고요하여 거울같이 맑은 십 리 물결이 펼쳐져 있다. 펄펄 나는 갈매기들은 춤추는 자리에 내려와 날개를 떨치고 물소리는 노랫소리와 함께 흘러간다……질탕한 음악소리는 푸른하늘에 울려퍼지고 펄펄 춤추는 소맷자락은 강바람에 휘날렸다. 붉고 푸른 장식들이 물속에 비쳐서 10리 전당호가 한 조각 꽃과 같은 세계로 변한 듯했다.

황여옥은 큰 잔을 기울여 10여 잔을 마시고 취흥이 도도하여 강남홍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황여옥은 미친 듯한 취흥을 이기지 못하고 좌우에 호령하여 작은 배 한 척을 끌어와서 물 한가운데에 띄우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소주의 여러 기생들에게 강남홍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도록 하였다. 배 안에는 겹겹이 쳐져 있을 뿐 다른 물건은 없었다⁵⁸⁾

좌우를 명하야 비를 중류에 띄오니 큰 강에 바람이 고요하고 거울 갓흔 물결이 월하에 맑았는디 관현은 질통하야 강상의 잠든 빅구를 놀니이고 청아한 노리소리는 반공에 써러지며 춤추는 소미는 완만하야 강풍에 느붓기니 취주흥장이 슈중에 조요하야 대동강상이 솟발을 일웠는지라 감스 | 대희하야 대빅을 기우려 십여 비를 마시고 취흥이 도도하야 용낭의 억기를 치며 대쇼왈……츠시 감스 | 미친 마음을 것잡지 못하야 모든 기녀를 호령하야 용낭을 못들어 혼 적은 빈에 느리니 그 빈에 비단장을 겹겹이 둘러치고 아모 것도 업더라⁵⁹⁾

②강남홍이 거문고를 밀쳐놓으니 매서운 빛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축원하였다. “푸른 하늘이시여. 저를 이 세상에 낳을 적에 처지를 미천하게 하셨으면서 뛰어난 재주를 주시었습니다. 넓고 넓은 천지에 보

<부용상사곡>, 70면.

58) <옥루몽>, 105~107면.

59) <부용상사곡>. 70~71면.

잘 것 없는 이 몸을 용납할 곳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맑은 강 물고기
 뱃속의 굴원을 그 누가 찾겠습니까. 바라건대 제가 죽은 뒤 이 몸을 떠오르
 게 하지 마시고, 외로운 흰백이 깨끗한 땅에서 노닐게 해 주소서.” 말을 마치
 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남홍이 강물에 몸을 던지가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이 크게 놀라고 당황하여 급히 구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가볍고 물
 살은 급해서 미처 잡아채기도 전에 치맛자락은 풍파에 표연히 날려서 잠깐
 사이에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소주 항주의 모든 기생들이
얼굴을 가리고 통곡을 했으며, 두 자사 역시 아연실색하여 사공에게 급히
구하도록 했다. 서로 묶었던 배를 풀어서 온 강을 가득 채워 수색하도록 했
 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⁶⁰⁾

용년이 드디어 거문고를 밀치고 렬렬한 괴운이 미우에 7득하며 왈 유유
 창텨아 이 부용을 인간에 내실제 어이 그 처디를 천히 하시며 어이 또 그
 마음을 달니 품슈케 하시뇨 광활한 이 세계에 적은 몸을 용납할 곳이 업스오
 니 청강어복에 굴삼려의 자취를 차지며 쇼상강상에 이비의 혼을 쓰로리라
 하고 말을 맞치며 선두에 썩러지니 주중지인이 더경황황하야 급히 붓들고져
 하나 가비아온 몸을 밋쳐 것잡지 못하야 물결바람에 라군이 나뭇기며 간 곳
 이 업느리라 평양제기 우지 아니하느 자 | 업고 감스 | 악연실식하야 사공
을 호령하야 건지기를 직촉하니 모다 황황하야 결선호 비를 풀어 강을 덩허
차즈나 그 종적이 묘연호지라 감스 | 무연하야 즉시 선유를 꼭 하고 도라가
 나라⁶¹⁾

①은 소주자사와 평안감사가 술에 취해 따로 마련한 배에 강남홍과 부
 용이 옮겨타도록 하는 장면이고, ②는 겁탈당하기 직전에 강남홍과 부용
 이 이를 피하려 강에 투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밀줄친 부분에서만 전당호
 와 대동강, 소주 항주와 평양이 변별될 뿐이다. 이후 강남홍이나 부용이

60) <옥루몽>, 109~111면.

61) <부용상사곡>, 73~74면.

전당호의 해녀 손삼량이나 능라도의 어부 최기남에게 구출되는 것도 유사한 설정이다.

이런 양상은 물론 <옥루몽>과 <부용상사곡> 두 작품 간의 패러디,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부용상사곡>만이 아니라 평양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작품들 속에서 대동강의 대표정 정자인 연광정 연회는 소주의 압강정 연회를 떠오르게 한다. 또한 <이진사전>의 경우 이진사가 평양에서 백일장 대회에 참여하는 모습은, 문필의 실력을 겨루는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기녀들이 동원되어 잔치를 베풀며 즐긴다는 점에서, 소주와 향주의 문인들이 압강정 등에서 기녀들과 잔치하며 글 짓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런 점에서 고소설 속에 형상화된 평양은, 중국 배경 소설의 절강 유역과 유사한 심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풍류와 유희의 공간이자, 절강 유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등한 공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서사의 유형성과 '비일상'이라는 지역성

관서 관북 지역을 다룬 작품들은 크게 전란 관련 이야기, 기생과의 애정 혹은 훼손 이야기, 유람 이야기라는 세 범주의 서사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기생과 유람 이야기는 대체로 짝을 이룬다. 곧 이 지역을 다룬 작품들 자체가 서사적 유형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성은 이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형성을 형성한다.

먼저, 전란 관련 이야기의 경우, 주인공들이 이곳 출신이든 아니든, 이곳이 부각되든 부각되지 않든 전란의 중심지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강로전>에서 명나라의 원군으로 복진하거나 후금군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의주와 능한산성, 안주성이 함락되면서, 온갖 도륙, 살상을 당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그려지는 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전쟁터의 아비규환 묘사보다 이곳의 인상을 더 좌우하는 것은 <김영철전>에서 후금의 포로로 온갖 고난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영철에게 주어지는 냉혹한 현실이다. 일단 이 현실은 그 동안의 전란으로 아버지가 전사한 것과 그 사이에 가세가 기울어 너무나 빈핍해졌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본인을 군사적인 목적으로 다시 후금과의 협약 등에 이용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전혀 이득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타국보다 못한 대접을 하는 영유현 현령의 처사이다. 이런 형상들은 이곳이 여러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정신적 물리적으로 황폐해진 지역이라는 유형성을 형성한다.

기생과 유람 이야기의 경우, 먼저 인물에서부터 유람 혹은 방랑하며 이동하는 남쪽 남성과 모두 기생이거나 기생이 될 여자인 북쪽 여자라는 유형성을 보인다. 그러면서 이 남쪽의 남성이 본래의 거주지를 떠나 북쪽이라는 낯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남성은 기생과의 만남이나 명승지와 유적지 유람이라는 비밀상의 경험을 하게 된다. 명승지나 유적지 유람이 비밀상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작중 인물들에게 남아로서 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경험으로 인식되는 데 비해, 기생과의 만남은 일탈의 경험으로 인식되며 그 속에서 '내가 아닌 나'가 되는 것 또한 유형적이다. 이는 <오유란전>에서, 평양이 변화하다며 평양에 가기를 주저하던 이생이, 결국 오유란에 빠져들게 되자 먼저 수작을 걸어 동참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데 대해 "이생은 이미 전일의 이생이 아니었다. 호탕한 기분이 넘쳤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난다.

이처럼 관서 관북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고소설 작품들은, 전쟁 이야기와 기생과 유람 이야기가 주를 이루면서 유형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유형적인 인식을 형성한다. 먼저 전쟁 이야기의 경우,

평온하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전란으로 긴박하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기생과 유람 이야기의 경우, 기생만 전경화되는 유흥의 공간으로 떠나가 기생과의 일탈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을 하게 되거나, 유람을 하거나 속임수에 걸려드는 등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역시 일하거나 공부하는 일상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결국 두 유형적인 서사를 통해 형성되는 유형적 인식은 ‘비일상의 공간’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⁶²⁾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이런 ‘비일상성’은 낮섬, 긴장, 참신, 낭만이나 환상 등의 감정을 환기하면서 서사의 역동성을 획득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관서 관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에서 ‘비일상성’이 감지되는 것은 개별 작품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군을 통해 ‘비일상의 공간’이라는 유형적 인식이 형성될 경우, 자칫 그 지역을 타자화하면서 다른 지역의 독자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⁶³⁾

62) 두 서사 유형 이외의 이 지역 배경 작품들, <취유부벽정기>(평양 부벽정)나 <장화홍련전>(평안북도 철산), <인향전>(평안남도 안주), <변강쇠전>(평안도 월경촌-이 경우 배경 자체가 허구적이다) 등도 환상적인 체험이나 비일상적인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일상의 공간’이라는 자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63) 소설의 역동적 요소로서의 ‘비일상성’이 아닌, 지역에 대한 관념으로서 가치가 개입된 ‘비일상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승수 또한 평양 체험을 한 문인들의 평양 대상 문학 작품들을 거론하면서 이들 문인들에게 평양이 문학적으로 사랑받은 공간이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들 문인들이 대부분 이방인였고 평양은 이들에게 타자화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들 문학을 통해 평양을 보는 우리의 시선 또한 여행객의 그것이라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승수, 앞의 논문, 107면.

5. 결론

본고는 고소설 속에 형상화된 관서 관북 지역의 양상을 살피고 그 특징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고소설 속에서, 관서지역은 평안남도의 대표적 두 도시인 안주와 평양을 비롯해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이 언급되고 있으며, 평안남도에서는 단연 평양의 빈도가 높고 평안북도에서는 국경근처인 의주나 창성의 빈도가 높은 편이다. 관북지방은 상대적으로 그 분포가 다양하지 못하고 빈도도 낮다. 결국 고소설 속 관서 관북 지역은, 그 분포에서 관서에 집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평양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서 관북 지역은 먼저, 기녀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작품들 속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평안감사 관련 연회나 행사, 평양기생이라는 풍속과 명승지를 갖춘 유람지의 면모 등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문화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이 지역은 특히 <김영철전>이나 <강로전>과 같은 전쟁 서사를 통해, 의주나 창성과 같은 국경 지대와 전쟁의 주요 거점과 이동 경로가 실사에 근접하게 설정되고 있으며, 북방 변경 지역으로서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나면서 정치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이자, 발해의 옛땅이며 조선 건국의 주축이 되는 땅으로서, 이와 관련한 역사적 내력과 인물의 소회, 감회의 감정이 더불어 서술되는 방식을 통해 역사적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서 관북 지역의 형상화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먼저, 관서 관북 지역은 역사나 정치, 문화적으로 대체로 당시 지역의 실상과 부합되는 형상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 배경 작품들이 실제 가보지 않고도 지리서나 역사서 등을 통해 숙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런 전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자료나 정보가 한정된

관북 지역을 다룬 작품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작품 속에서 평양은, 중국 배경 소설의 절강 유역과 유사한 심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풍류와 유희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평양이 절강 유역을 대체할 수 있는 대등한 공간 배경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용상사곡> 속 평양 기생 부용의 대동강 투신 관련 일련의 서사가, <옥루몽> 속 항주 기생 강남홍의 전당호 투신 관련 일련의 서사와 거의 그대로 일치하는 데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관서 관북 지역을 다룬 작품들은 크게 전란 관련 이야기, 평양 기생과의 만남과 유람 이야기라는 서사적 유형성을 띠며, 이런 유형성은 이 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형성을 형성한다. 먼저 전란 관련 이야기의 경우, 긴박하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며, 기생과 유람 이야기의 경우, 기생과 일시적인 사랑을 하게 되거나 유람을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일탈적 공간이라는 인식을 형성한다. 결국 이런 두 유형적 인식은 ‘비일상의 공간’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그 동안 평양에 국한되었던 지역을 확대하여, 고소설 속 관서 관북 지역 문학적 형상화의 전반적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막연하게 인식되었던 이 지역 배경의 구체적 실상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소설이라는 장르 속에서 이 지역이 매개되는 양상과 그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문학화, 나아가 소설화의 한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평양이 관서 관북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존재감을 지닌 지역이라는 점은 다소 간과된 면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평양 중심 논의들과의 변별성을 초점화하여 드러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는 실제 존재하던 지역과는 별개로, 평양이라는

지역이 당대인의 관념 속에서, 그리고 소설이라는 장르 속에서 환기되던 특정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평양이, 중국 배경 소설의 절강 유역과 유사한 심상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풍류와 유희의 공간으로 형상화되면서, 절강 유역과 대등한 공간 배경으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한 지점이 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강로전>, 신해진 역, 『권척과 한문소설』, 보고서, 2008.
<부용상사곡>, 『활자본 고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76.
<월하선전>,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21, 아세아문화사, 1980.
<오유란전>, 장효현 외, 『애정세대소설』,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7.
<옥루몽>, 김풍기 역, 『완역 옥루몽』 1, 그린비, 2006.
<이진사전>, 『활자본 고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7.
<취유부벽정기>, 김수연 외 편역, 『금오신화 전등신화』, 미다스북스, 2010.
-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의 상업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01, 1~250면.
김경미, 조혜란 역주, 『19세기 서울의 사랑 -절화기담, 포의교집』, 도서출판 여이연, 2003, 1~256면.
김수연, 「<취유부벽정기>의 '경계성'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217~250면.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 연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201~229면.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1~280면.
김태준 외, 『문학지리, 한국인의 심상공간』, 논형, 2005, 1~530면.
나경운, 「남성취월 소설의 비판의식 연구 -<배비장전> <오유란전> <삼선기>의 인물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115면.

- 박일용, 「〈취유부벽정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 -〈등목취유취경원기〉, 〈감호야범기〉와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소설 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2, 5~30면.
- 송혜진, 「조선 후기 관서지방의 공연 시공간과 향유에 관한 연구」, 『공연문화연구』 22, 한국공연문화학회, 2011, 287~326면.
- 신장섭, 『관서의 역사와 문화』, 북스힐, 2007, 1~238면.
- 우쾌제, 「〈南征記〉의 南征路에 나타난 西浦의 中國 認識 考察」, 『국어국문학』 115, 국어국문학회, 1995, 59~82면.
- 이명희, 「平安監事到任行事圖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9, 1~153면.
- 이복규, 『우리고소설연구』, 역락, 2004, 1~336면.
- 이승수, 「한국문학의 공간 탐색 1 평양 -김시습의 〈취유부벽정기〉와 이태준의 〈패강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3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9, 97~121면.
- 이은숙, 「신작구소설의 성격을 통해 본 연구전망」, 『국어문학』 34, 국어문학회, 1999, 349~373면.
- 이중환 저, 허경진 역, 『택리지』, 서해문집, 2007, 1~263면.
- 정민, 「16, 7세기 조선 문인지식인층의 江南熱과 西湖圖」,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281~306면.
- 전성운, 「〈취유부벽정기〉의 공간성과 서사 전개」, 『우리어문연구』 34, 우리어문학회, 2009, 191~222면.
- 최경환, 『〈육미당기〉의 텍스트 생성과정 연구』, 월인, 2002, 1~268면.
-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13, 한국고전문학 교육학회, 2007, 67~99면.

ABSTRACT

Figuration of Northwestern-Northeastern Region and
Its Implication in the Ancient Korean Novels

Tak, Won-Jong

This study aims to probe into the aspects of Northwestern and Northeastern region embodied in the ancient Korean novels, and to subsequently reveal its characteristics and underlying implications.

The region which frequently appears in many ancient Korean novels is concentrated in the Northwestern region, particularly, Pyeongyang.

Cultural figuration is largely detected centrally in Pyeongyang district,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ultural cities, which used to have various banquets and events held by or for the State governor of Pyeongando province; many traditional local artisans named Pyeongyang Gisaeng; and beautiful landscapes and scenic spots. Political figuration is also formed in this region, while faithfully reflecting the features of Northern frontier area. Lastly, historical configuration is made through the method of describing historical features, personal impressions, and introspective feelings all at once.

The figuration of Northwestern-Northeastern region in the ancient Korean novels bears a diversity of characteristic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iguration faithful to geographical facts, Pyeongyang as the metonymic area of Zheijiang region, epic corporeality and the locality called 'unusualness'.

Key Words Northwestern-Northeastern region, Gisaeng, Northern frontier area, Pyeongyang, Zheijiang, 'unusualness'.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